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구원에 관한 기초

제 4 과

이전에 공부한 내용 복습

지금까지 공부하는 중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 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7 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무시하고서는 자기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든 교묘한 말로 설득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심판에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것들에 의와 거룩함과 경건함의 가치를 부여하시는지 보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미 구약 성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13 개의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은 그 중의 10 개이며, 이것은 구약 성경 율법의 골자를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았을 때 내린 결론은,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서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유죄입니다. 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솔하게 거짓말을 하고, 때때로 무엇을 훔치고, 거듭 거듭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율법의 **한 점**을 어겨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는 우리는 율법 전부를 범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두 가지 다른 종류**로 보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았습니다. 첫째 그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에 의해 관계를 얻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이상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난 번 과에서 우리는 관계가 없는 데에서 관계가 있는 데로 위치를 변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러한 위치 변경이 생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대체물**로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하시려고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넷째 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해 놓으신 일을 우리 각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 놓으신 일을 어떻게 취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함을 받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의 두 가지 요소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_____ 하고 복음을 _____, 하시더라." (마가복음 1:14-15)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말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기록 대로, 성경이 예언한 꼭 그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기록 대로, 예언된 꼭 그대로, 묻히시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서는 느닷없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 3장에서부터 계시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며, 어디에 오시고, 어떻게 사시며, 어떻게 배반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며, 어떻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실 것인지를 계시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예언된 바로 그분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또 한 사람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또 한 사람의 종교적인 선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 **마가복음 1 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주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집니까? 사람이 어떻게 영원을 준비합니까? 그 답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의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을 선포하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도행전 20:20-21** 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 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됩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코 순종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의 이 두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봅시다.

1. 회개

첫째로, 우리는 회개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입니다. 저나 당신이나 각자 정의를 내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정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것을 성경에 거듭 거듭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포함된 구절들을 몇 개 살펴 보기만 할 것입니다.

욥기 42:6 — 첫째, 회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만듭니다. 욥기 42:6 에서 욥은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서 극심한 시험을 겪고 있었으며, 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나쁘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 모든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삶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자기가 자신의 복잡한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그 간단한 것들에 대한 답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응당 욥은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으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어떠한 것에 대해 미워하고 몹시 싫어합니다. 저는 제 고락서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정말로는 그런 제 모습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정말로는 그건 제가 아닌 것처럼 행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제가 아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거룩하심과 자신의 비참한 죄 많음을 볼 때, 제 모습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몹시 싫어합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9-10 — 둘째, 회개는 죄에 대한 깊은 근심을 가져옵니다. 깊은 근심이란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개인의 바로 그 마음속까지 도달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9-10** 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_____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_____를 이루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지체들이 몇 있었는데,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그 죄를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

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아주 엄한 책망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편지를 읽고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 근심하기 시작했으며,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였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면서 다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의 차이가 무엇 일까요? 세상적인 근심이란 사람들이 후회할 때 하는 근심입니다. **회개**란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게 됩니다. 아마도 곤경에 처했는데 그것을 알고서 후회한다고 말하고는 그것으로부터 기꺼이 뒤돌아서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진지하게 보이며 잠시동안은 그것에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내일이나 다음 주 또는 훗날 언젠가 그들은 아마도 그건 그렇게 나쁜 것이 결코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성급한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시금 되돌아서서 그것으로 곧바로 달려 갑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아편 전도 집회에서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가 봅니다. - 역자 주) 어떤 사람이 통로를 달려 내려가서는 "저는 구원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동안 잘 하다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는 "있잖아, 그 교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 교회 갔더니 마음이 안 좋더라. 교회에서는 내가 성경 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난 내가 것처럼 되는 것을 원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좋아하게 될 지 어떨 지 몰라." 이것이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언젠가 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라고 말하게 하지만, 그 다음날은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며, 내 죄 때문에 후회가 된다."라고 사람이 자각을 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들은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서 참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후회하는 마음이 될 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방향

전환을 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깥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 없이 사람이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걸으려는 열망이 생기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외면하지 않는 근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9-10 — 셋째, 회개는 우상들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9-10에 보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관하여 보여 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_____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_____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우상들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호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우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당신 집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텔레비전일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스키나 낚싯대나 집안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차고에 주차시키는 차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일, 직업일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당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이것들이 당신 삶 속의 우상이 됩니다.

어떤 것들을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면, 자신이 한 때 사랑했던 이런 것들에서 기꺼이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한 사람은 자신과 자기 구원자 사이에 끼어드는 그 무엇도 기꺼이 포기합니다. 내 구원자보다 더 값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마음자세입니다.

마태복음 3:8 — 넷째, 참된 회개가 한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합니다. 마태복음 3:8을 봅시다.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침례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침례 주기를 거절하고 그 대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진

정으로 회개하였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에서 스스로 증거가 되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에 대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사람들이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말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행동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근심이 없으면,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9:1-10 — 다섯째, 회개는 사람이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을 통해 입증됩니다. 누가복음 19:1-10 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회개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_____." (눅 19:8)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흠친 것은 네 배로 갚았습니다.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호주에서 우리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브랜드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안하다고만 말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으면 일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욕구가 자기 마음 속에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25-26 — 여섯째,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인정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25-26 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구원자가 없는 남자나 여자에게서 보이는 표시들 중 하나는 '자기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생각들, 자기가 믿는 자기 자신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관점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지 않다면 저는 제 의견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견해를 입증하려고나 제 의도를 감추려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 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제 의견들과 생각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춥니다.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인정하게 합니다. 회개는 사람이 자신의 파산, 자신의 영적 명철 부족을 시인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게 합니다. 회개가 있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옳으며,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유의하십시오. 누가 하나님과 논쟁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유의하십시오.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인정하게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자신이 죄로 가득차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종교계는 이러한 진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없이는 회개란 없으며,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란 없습니다.** 저와 논쟁을 벌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신의 입은 다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진리에 따라 그리고 속마음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에는 여섯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욕기에서 우리는 **회개가 죄에 대한 깊은 근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있지, 난 정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이걸 심각한 일이야."라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회개란 후회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지 않는 그런 근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처럼 울다니 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능자 하나님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리 근심해도 지나치게 근심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지나쳤다고 후회하지 않는 근심입니다.

셋째,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들로부터 돌아서도록 합니다.** 이것들에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다 포함됩니다.

넷째, 한 사람의 삶에서 회개가 있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회개는 사람이 일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을 통해 입증됩니다.

여섯째,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인정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 여섯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손잡고 일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회개의 장소에 와 있기 전까지는 당신은 당신의 구원자로서의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14-24 을 살펴보고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 야고보서 2:14,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가 여기서 묻는 질문을 유의하십시오. 만일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변화가 없었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수반되는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기 길을 그냥 가면서도 자기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질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15-16,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__을 주느냐?"

야고보는 예화를 하나 들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당신의 이웃 사람들이 와서 당신 집의 문을 노크하면서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 누더기 차림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해 야위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의 불은 꺼지고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남아 있지 않으며,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고서 아주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몸이 따뜻해졌습니까?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족이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17,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__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런 행위도 보여주지 않으며, 그의 삶은 변한 것이 없고, 옛날처럼 여전히 똑같은 비열하고 성미 고약하며 기만적인 사람이요, 여태까지와 똑같은 거짓말쟁이라면, 그가 가진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 것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18,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당신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누군가가 확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믿을 어떤 이유도, 어떤 자신도 제게는 결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침례 주기를 거절하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 요한과 꼭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지를 의심할 모든 이유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기꺼이 침례를 주기 전에 변화된 삶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마귀의 믿음 — 야고보서 2:19,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다음 종류의 믿음은 **마귀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보았으며, 그것은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류의 믿음은 악마의 믿음, **마귀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들이 언젠가 그분의 왕좌 앞에 굴복할 것이고 심판 받아 영원토록 불호수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냥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때 떨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자기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며,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이런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걸어 나가서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걸어 나가서 등을 돌리고서는 말합니다. "한동안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그것으로부터 당분간 떠나야 해. 그런 종류의 선포와 가르침 주변에 있으면 나는 좀 기운이 빠져. 어느 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을 난 알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이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묘지 판매원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판매원과 이야기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닥쳐올 죽음이라는 편안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인정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20,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___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당신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당신에게는 무가치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어 주지 않는 믿음은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역동적인 믿음 — 셋째 종류의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2:21-24**에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들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야고보가 여기서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 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몇 년 후 창세기 15 장에서 하나님께

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시점에 아직 한 명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가 많은 후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구원자, 세상의 죄들을 위해 죽을 그분이 그의 계보에서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15 장의 이 일은 12 장보다 약 13 년 후에 일어납니다.

창세기 15:6 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__로 여기시고**" 이 단어 "여기시고(counted)"는 부기 용어입니다. 그 뜻은 야고보서에서 사용된 단어 "인정하셨다(imputed: 돌리다, 전가하다)"와 같으며, 로마서에서 사용된 단어 "여겨졌다(accounted)"와 같습니다. 장부 기입자는 지불해야 할 돈(빚)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대변에, 즉 마이너스 쪽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이 금액은 차변에 기재되며, 마이너스 쪽 금액에 그만큼 플러스 되어 잔액이 구해집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마이너스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로 돌려 인정하시며, 이것은 장부에 플러스 수치를 더해서 잔액을 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해야 할 빛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겨 주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의 죄들이 용서되었습니까? 15 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주 간단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 위해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생활을 일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2 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여겨진 때로부터 41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난 번 과에서 살펴 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삭을 죽이는 것을 정말로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

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잡고서 칼로 그의 가슴을 기꺼이 찌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중지시키셨습니다. 분명 이삭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죄들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단지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날 이후로 당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41 년 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진정으로 믿으면, 당신은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였을 때 가르침을 받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그것을 믿었고 매일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입니다. 저는 위로 올라간 것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믿으며, 높은 건물들에서 이탈하는 것은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저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할 것을 예상하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매일, 마치 그 중력의 법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발걸음을 땄 준비가 되면 저는 제 발에 아래로 힘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몸무게가 저를 도와서 아주 빨리 내려가게 할 것이라고 중력의 법칙이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털썩 발을 내려 놓지 않습니다. 저는 각각의 발이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제 발을 살며시 내려가게 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제 발을 아래로 내립니다. 제가 할 일은 그 발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의 남은 날들 동안 당신의 삶을 정돈할 어떤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 진리 위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적 진리에 의존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부터의 모든 결정은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서 내려지게 되는 식으로 삶을 삽니다. 당신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저를 사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모든 결정은 당신의 죄들을 위해 죽으실 만큼 충분히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면밀한 조사 하에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스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들을 명령하시는 그분, 어느 방향으로 갈지의 결정을 지휘하시는 그분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마귀의 믿음**인지 아니면 **역동적인 믿음**인지는 그들의 삶이 말해줍니다. 죽은 믿음이나 마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을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기초하여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자

기 자신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된 믿음**, 즉 **역동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4:1-5 —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____로 여기시느니라."

이 구절들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나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나 돈을 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등으로 천국행을 획득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자랑하면서 돌아다닐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우리를 천국에 더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뽐낼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첫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 잘못하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이미 자기 죄를 미워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달라지기를 열망하고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인식하게 될 때, 그의 유일한 희망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에 두어집니다. 그가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믿음을 그가 가지면, 그는 구원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구출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통 휩싸이게 됩니다. 자기가 구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며 자기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의 남은 날 동안 일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 장에서 하나님을 믿은 지 41 년 후 창세기 22 장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순종하고 기꺼이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감사한 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로마서 10:17,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___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___에 의해 오느니라." 당신과 제가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있는 상태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는 이미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날*에 당신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투표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의해 옵니다.

누가 중력의 법칙이 없는 외계에서 태어나서 키워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갑자기 생애의 중간에 처음으로 지구 대기권 속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과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을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평생에 그와 같은 것을 결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지구에 도착할 때 그런 방법으로 (우주선을) 작동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구 대기권 속으로 그리고 중력의 법칙의 통제 아래로 진입할 때, 자기들이 믿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달라지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자마자, 그들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로 그들은 자기 의자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우주 캡슐 밖으로 걸어 나가 30 피트 아래 땅으로 떨어 내려 가려는 즉시 그들은 세차게 땅에 부딪칠 것이며 그것(중력의 법칙)이 정말인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내가 전에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과 영원과 천국에 가는 법에 대한 것 모두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의 법칙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영원을 준비하든지, 혹은 준비 없이 영원 속으로 인도되어 그 결과를 감당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FAITH)은 믿는 것(BELIEVING)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어떻게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전반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람이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출되어, 자기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태까지 사물을 보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꽤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협상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 14:12 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_____ 그것의 끝은 _____ 의 길들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이는 그 길은 선행을 통해서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천국에 가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보아넘겨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사망, 지옥에서의 영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이 틀렸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며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뛰어넘으려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뛰어넘고서 참된 믿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의를 가져옴

로마서 3:21-28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____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____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____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사람이 진정으로 믿으면, 그것이 그의 삶에 무엇을 달라지게 할까요? 이 구절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마련하셨는지 그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으며, 그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목사이든 마을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든 외국의 이교도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 즉, 바르게 하시는 방법은 속량(구속)을 통하여서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되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사실 수 있으시며,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을 우리 죄들에 대한 지불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대가가 지불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으로 당신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당신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것에 의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하신 일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의 죄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시면서, "나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할게."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죄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으며,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은 당신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빛을 대신 지불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 대가 지불이 당신을 위하여 유효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십자가 위에 달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__을 보__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__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의 첫 부분을 살펴보

겠습니다.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과 사람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란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있고**'란 말은 '**바로 지금 소유하고 있고**'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당신의 현재 소유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는 '바로 지금'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제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게 그것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제게 주시도록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바로 지금, 저의 현재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 — 생명(삶)은 단지 존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관계는 삶을 채워 줍니다. 그것은 "좋아,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나는 행성을 온통 내 자신의 것으로 오염시키면서 음식과 공기를 사용하고 있어."가 아닙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삶에 대한 이유를 줍니

다. 이것이 최대한으로 생명다운 생명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진 이유를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즉 태어났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생명에는 단지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일하러 가고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잠자리 돌아오는 것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상의 것이 생명에는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온통 다루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바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존하는 —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영구적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오래 영존할까요? 그것은 **항상 계속**되고, 무한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천 년 동안, 지금부터 만 년 또는 십만 년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미용실에서 하는 "파마 머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만간 누가 그 미용사가 허위 광고를 했다고 고소할 거라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파마 머리(영구적인 머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시적인 머리라고 부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위 광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는, 그것은 영존합니다.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후에 당신이 죄를 지어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제가 선해서였거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를 거기로 데려다 줄 종교적인 일들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빼앗아 버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영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빼앗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28-29). 당신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고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무슨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은 자기 자신들의 가르침들을 고안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 당신이 어떤 시점 이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가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영원한 안전 보장은 자기들에게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당신에게는 의

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들을 하시며,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 우리들이 할 부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을 믿는 자"**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봅시다.

자 —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믿는 어떤 사람을 뜻합니다. 당신의 피부색이 무엇이랴 한다면, 당신이 어떤 종파라야 한다면, 당신이 어디에 살아야 한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 믿는다는 단어는 위탁하다, 신뢰하다,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잃어버려졌고 지옥가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현재 상태의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 위

에서 죽으신 것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들에 대해 받으실 유일한 대가 지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도 또한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천국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신뢰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시며,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믿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번 영원히, 저는 죄를 등집니다. 저는 저의 우상들을 버립니다. 저의 모든 잘못된 길들에서 돌아섭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사실에 기초해서 제 남은 생애 동안 저의 삶을 정렬하겠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에서 오는 소신이며, 그 사람의 남은 생애 동안 그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탐욕과 이기심과 생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의해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그는 자기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것과 비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비용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 이것이 이 모든 것의 키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에게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출발해야 하는 곳입니다.

연대표

연대표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대표 선은 당신의 일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이 있습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하거나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결혼하신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죽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일생이 길다고 보고 사망일을 충분히 멀찌감치 잡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 연대표 어딘가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 시각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분께서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이해하고, 그러므로 당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시각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제게는 그날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대략 한 달 반 정도 전인 1971년 4월 21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그리고 제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후로부터 제 삶은 눈에 띄게 바뀌어졌습니다.

로마서 10:9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_____ 구____을 받으리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을 취해서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그분을 주라고 불러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역정이 바뀌어진다는 의미에서의 믿음에 대해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죄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회개하고 모든 죄, 즉 내부의 죄들과 외부의 죄들 모두를 기꺼이 버

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께로 돌아서야 하며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그분에게만 두는 순간, 당신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쪽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 생애의 어떤 시점에 생기는 위기 상황과 비슷하며, 결코 영원히 잊지 않을 어떤 일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점차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주의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을 만난 사실을 모르는 채로 걸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구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당신 자신의 연대표를 그려 보십시오. 그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과 경험을 기억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 가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것이 참된 구원의 경험이라면, 그 요소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만, 당신은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 생애에 이 같은 때가 결코 없었다면, 저는 당신이 구원자에게로 가시고, 당신의 죄와 당신의 이기심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 당신의 유일한 천국 소망으로 영접하시도록 지금 당장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이 그분께로 가시도록 초청합니다.